****
새시대 교수법 182호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 조벽 Peck Cho
****

기억나는 선생님 3. 한양대 공업화학과 김원택 교수님

이번 호에는 경상대학교 남상용 교수님께서 보내신 글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1986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1학년 때에는 선택과목도 없이 필수과목들을 정신이 든던 때였고, 2학기가 되어서 전공필수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화학공업개론"이라는 과목이었는데, 머리가 하얗게 새버리신 노교수님이 첫 시간에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해가 정년퇴임을 하시는 해라는 소문을 들은 저희는 노교수님의 강의인데 별로 재미도 없고, 3시간 짜리 수업도 금방 끝내주시겠지 하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으로 쉴 새 없이 나오는 지루하지 않은 전공과 관련한 이야기들,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매끈하게 넘어가는 강의, 그 연세에 3시간 강의를 정확하게 2시간 50분 동안 속강을 하시는 체력..... 그리고 지각이라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셔서, 강의 시작시간에 출석을 불러서 없으면 그날은 무조건 결석입니다. 또한 결석 한번에 3점을 깍아서 제 동기 하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만점을 맞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지각에 A+가 아닌 A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항상 자리에 들기 전에는 우리 나라의 산을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내려오면서 외우고, 그리스 알파벳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외우신다고 하시고, 러시아어 논문을 읽기 위해서 57살에 러시아어공부를 시작해서 환갑이 되는 해부터는 러시아어 논문을 읽을 수 있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젊은 저희들이 항상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하면서 계속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년퇴임은 하셨지만, 학부에서는 계속 그 "화학공업개론" 과목을 강의하시고,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계속 하셨습니다. 한 시간하고 잠시 쉬고 계속 하는 강의에 익숙한 저희들에게는 항상 세 시간 속강의 교수님 강의는 두려웠지만, 젊은이들보다 더 학문적 궁금 점이 많아 보이시는 그 모습에 고개 숙이고는 했습니다. 수업시간이 시작되기 30분쯤 전에는 미리 강의실인 세미나 실에 나와 계시고는 하여서, 차라도 한잔 갖다 드릴라 하면 한 손에는 늘 책을 들고서 읽고 계시고는 했습니다.

박사를 마치고, 포닥을 하는 동안 들리는 소식은 계속 강의를 하시다가, 그만 풍을 맞아서 쓰러지셨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교수님은 다시 극복하시고 일어나셔서 재작년까지 계속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강의를 그만 두셨다고 하셔서 건강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임용이 되고서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찾아뵈었을 때 아직도 정정하신 모습을 뵈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86년에 정년퇴임을 하셨으니 벌써 여든을 넘기신 나이십니다.

세상에는, 특히 지금 대학에는 전문지식이 너무나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뛰어난 연구업적을 만들고, 제자들에게 지식을 많이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대학에서 "교수님"이라고 앞에서 부르고, 뒤에서는 "교수", "교수**"라고 부르는 학생들은 많지만, 진정한 선생님이나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태에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시던 교수님의 모습이 그리워지고 그 모습을 조금씩 좇아가고자 합니다.

ⓒ 조벽, 2003